

광주시 전국 최대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시청 일원서...장애인·시민 5000여명 복지협력 다짐
강기정 시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없는 포용도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복지 박람회’가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일원에서 장애인과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장애인체육회가 협력했다.

‘모두의 돌봄! 모두의 JOB! 모두의 건강!’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에는 지역 130여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해 돌봄·일자리·건강·교육·체육 등 5개 분야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생산물 판매, 일자리 상담, 건강

검진, 재활운동 체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복지종사자,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복지도시 광주’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를 둘러본 한 시민은 “장애인복지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행사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장애인예술단 공연이 진행됐다. ‘정책 토크쇼’와 대한민국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의 특강 ‘문턱없는 식당, 모두의 식탁’이 열려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 복지의 가치와 현장을 시민과 함께 나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5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개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습 광주시장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기관, 단체, 시

민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이 함

께 성장하는 광주형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민숙 동강대 총장, 우수 유학생 유치 행보

동강대학교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지난달 23~31일 허숙 국제교류원장, 이상희 한국어학당장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순회 개최된 ‘2025 한국전문대학교 유학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유학박람회는 고등직업해와 인재유치협의회(이하 ‘해인협’) 주관으로 동강대를 포함해 전국 13개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참가했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단 일행은 10월2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이어 2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9일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동강대를 홍보했다.

특히 현지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유학 관련 상담도 펼치며, 내년 신설하는 △Aged Care과(요양보호) △AI미래자동차과 △글로벌한국어학과 등 외국인 전담 3개 학과를 적극 알렸다.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이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2025 한국전문대학교 유학박람회’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이민숙 총장은 지난 6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9월에도 중국 길림성 성도인 장춘시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이민숙 총장은 “유학박람회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외국인 학생 유치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강대는 내년도 외국인 전담 3개 학과를 운

영하는데 유학생들이 동강대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진흥원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장관상

직무중심 채용·기회평등 실현 인정...포용적 고용문화 확산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운영, 직무중심의 인재 선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정채용을 실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발굴·포상에 건전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2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진흥원은 △직무능력 중심 인재선발 △차별 없는 기회평등 △구직자 공감채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세우고, 채용과



정 전반기 투명한채 설계해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수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포용적 고용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 ‘청렴 솜품’ 공모전 시상

‘슬로건’ 고려중 정의찬 ‘솜품’ 전대사대부고팀 수상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 슬로건 및 솜품 영상 공모전 학생부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청렴 슬로건 및 솜품 영상 공모전’은 지난 8월 ‘공감·신뢰·책임·존중·투명’으로 정립한 광주교육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 교직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슬로건 부문 278건, 솜품 영상 부문 16건 등 294건이 접수돼 경쟁을 벌였다. 공모 결과 학생부는 슬로건 6건, 솜품 영상 3건 등 9건, 일반부는 슬로건 5건, 솜품영상 3건 등 8건이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학생부 최우수상은 △슬로건 부문 ‘후회를 부르는 청탁! 희망을 부르는 청렴!’(고려중 정의찬 학생) △솜품 영상 부문 ‘청렴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빛나는 것’(전대사대부고 팀·진영찬 4명) 등이 각각 받았다.

또 광주세광학교 이번 학생 외 4명이 만든 ‘광주시교육청 깨끗한(청렴한) 바다로’는 솜품 영상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일상을 청렴의 시선으로 풀어내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2025년 청렴 슬로건 및 솜품 영상 공모전 학생부 시상식’에 최승복 부교육감과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슬로건 부문 ‘청탁하면 삼류, 고만하면 이류, 청렴하면 일류’(이신애 씨) △솜품 영상 부문 ‘작은 생활의 일상을 청렴의 시선으로 풀어내’ (광주제림초 진상일 늘봄지원원구사)

이 차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며 광주교육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신세계안과, 스마일라식 ‘9만건’ 돌파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는 스마일라식과 스마일프로 시력교정 수술 누적 건수가 지난달 기준 9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만건 달성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룬 성과다.

스마일 수술은 각막 최소 절개 방식으로 각막 표면을 투과해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아 손상이 적고 기존 방식에 비해 안구건조증, 각막흔탁, 원추각막증 등 기존 방식의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

수술 후 빠른 일상 복귀도 가능하며, 통증도 적어 빠른 회복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안과는 지



난 2013년 광주·전남 최초로 스마일라식을 도입한 후 꾸준한 수술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 최신 장비인 ‘비주 맥스 800’을 포함하

스마일프로 수술도 포함돼 있다.

스마일프로는 기존 스마일라식에 비해 더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만건 이상 시술된 추세다 시력교정술이다. 스마일프로와 스마일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저 조사 속도다. 레이저 조사 속도로 기존보다 3배가량 빠르고, 이로 인해 수술 중 환자의 부담, 건조감, 감염 위험성을 낮췄다.

이산하 기자

게시판

결론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 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래프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염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ონსე (음력 9월 22일)

48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편이 해소된다
60년생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한다
72년생 개입하여 들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
84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
96년생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간 셈
51년생 자각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63년생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 난다
75년생 부주의하면 큰일 난다
87년생 새로운 수입 아무도 모르게 간수
99년생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기회 온다

54년생 시기 잘못 우려 있으니 주의
66년생 남의 일에 관여말라 구설수 있다
78년생 담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90년생 투자 유혹에 걸리지 마라

57년생 뜻하지 않던 돈이 나간다
69년생 거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
81년생 인연으로 남매를 만날 수 있다
93년생 직장에서 갈등과 불화가 나타난다

49년생 과음은 중병을 부르게 되니 주의
61년생 지인의 배신으로 속이 상하는 날
73년생 지금이 부동산 투자에 좋은 기회라
85년생 뒷사람에게 도움을요청하자
97년생 계획만이 어려움을 극복 하는 길
52년생 좋은 문서는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64년생 거리를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76년생 마음만 요란하다 이익 없고 자녀 근심
88년생 무시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55년생 사업 잘 되어 간다고 확신 하지 마라
67년생 황금을 탐진 했으니 설욕할 곳이 없다
79년생 근심 말라 금전문제 해결 될 것
91년생 이성과의 여행이 성사 될 것

58년생 남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라
70년생 새로운 금전 수입으로 운수 좋은 날
82년생 흥성 지고 길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94년생 노상에서 문제 있으니 외출 삼가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참아라 후회가 없을 것
62년생 지출 요인 없앨 것
74년생 거래처 유혹하니 들어주면 사기
86년생 부러워할만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98년생 가슴 얹어하지 말고 상의하라
53년생 형제와 싸우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
65년생 오행 생겨 서로 관계 서먹해지기 쉽다
77년생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 할라
89년생 생각하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

56년생 사업체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68년생 인심을 쓰면 맞배의 이익이 올 것이다
80년생 문서 속에 격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92년생 희망의 빛이 가까이 오고 있다

59년생 지금은 작업 이루기 어렵겠다
71년생 가정이 불안하고 부부 싸움 일어났다
83년생 말이 급하면 불리하고 느리면 길하다
95년생 다음으로 이루는 것이 좋다